

# (주)체리부로 코스닥 시장 상장

— 원재료 기반시설 투자로 성장세 지속 전망 —



▲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주) 체리부로는 원종계부터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육계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으로 계열농가들과의 유대강화와 특화된 경영 및 사양관리로 직영 및 계약 농가들의 생산 지수가 업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나타낼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사료공장, 부화장, 도계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시설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고는 12월 4일에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는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을 만나 코스닥 상장의 의미와 향후 육계산업 전망을 들어보았다.

**Q 육계산업에서 (주)체리부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육계산업의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반도체산업의 시장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른바 치킨게임으로 널리 알려진, 즉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벌이는 증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치킨게임의 결과로 현재는

상위 3개사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지만 수년 내 극소수 상위권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리부로는 육계계열화업체 간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탄탄한 사육 기반을 구축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고, 육계산업의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수년간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해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원종계부터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완벽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하여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달에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계산업에서의 코스닥 시장 진출은 동종업체가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1월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우리가 얻은 소기의 성과는 지난 십수년 동안 쌓여온 육계산업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공모가격이 밴드 상단인 4,700원으로 확정되었고 기관 수요예측서에서는 2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체리부로는 주요 경쟁사들이 상장을 준비하던 시점에도 오직 원재료 수급 기반 구축

을 비롯한 수직계열화 구축, 상생을 기반으로 한 육계 농가와의 협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왔습니다.

**Q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코스닥 시장 상장은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산업의 치킨게임처럼, 육계산업의 치킨게임에서 체리부로는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도화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상장 후 유입될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머지는 종계농장 건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계농장 건립을 통해 사육 기반이 더욱 견고해져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적,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향후 (주)체리부로의 사업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희 회사는 지난 10월 육가공제품 생산



전문기업인 동양종합식품(주)을 인수했습니다. 기존 신선육 중심의 영업에서 탈피, 앞으로는 육가공제품 생산 물량을 늘리고, 가정간편식(HMR)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높은 제품 만족도와 브랜드 인지도 확대 등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온라인몰 시장 공략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2B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과 경쟁력을 이어가며 수익을 다지고, 자체 유통채널 확대 등 B2C 사업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 Q 향후 육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국내 육계산업은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

다. OECD를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의 육계산업도 여전히 성장 중이고, OECD의 연간 닭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국내 육계산업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육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와 기업

과 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의 성장에만 안주하지 않고, 해외 수출 물량을 늘리고, 역으로 시장 개방에도 대비하는 등 글로벌 육계계열화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육계산업 발전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AI와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러스 전파가 야생동물이나 기계적인 전파의 요인이 매우 큰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쥐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등 실질적인 방역활동을 홍보하고 실천해 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AI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어 조기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

